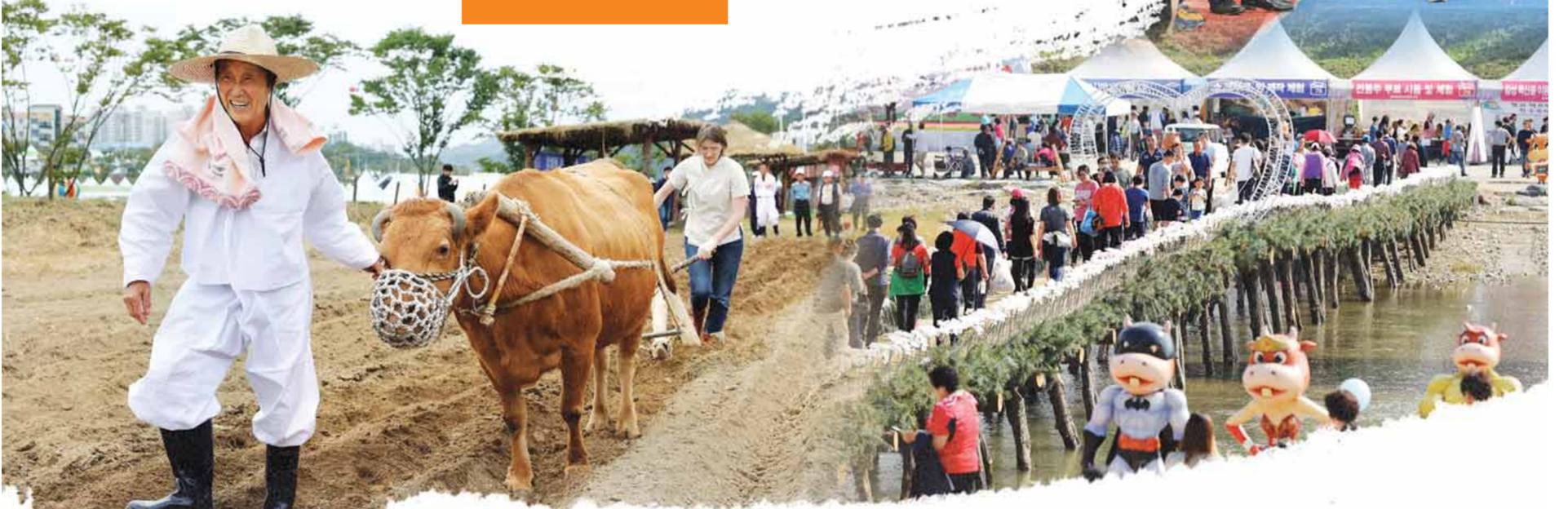


희성 한우

맛있소
재밌소
즐기소
달라졌소



▶ 위부터 오른쪽으로 희성한우축제장에서 소 밭 같이 체험을 통해 옛 농경문화를 엿볼 수 있다.
- 희성한우축제장인 성강을 가로지르는 쇠다리.
- 옛날 머슴들이 품삯을 정할 때 돌을 들어 힘을 겨루던 것에서 착안한 머슴돌 들기 대회가 올해 축제에서는 더욱 다양하게 진행된다.
(사진제공=희성군청·강원일보)

제13회 희성한우축제 19~23일

강원 “전국 최고의 한우 맛 좀 보실래요.” 제13회 희성한우축제가 19일 강원도 희성을 섬강둔치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. 오는 23일까지 5일간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그동안 희성한우의 ‘맛’을 알리는 먹거리 축제에서 희성한우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농경문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. 5일간 펼쳐지는 희성한우축제의 다양한 ‘맛’을 살펴본다.



희성한우 즐기는 145m 셀프식당
목장 주변 350m 건초 놀이터·체험장
노천카페·축육장·매일 풍성한 공연

원도심·전통시장서 프린지 페스티벌
강풀 웹툰작 전시...매직&인형극
축제장 전용 화폐 ‘우페’ 통용
옛날 우시장 재연·짚라인 첫 선

◇맛있소

한우의 대명사가 된 ‘희성한우’, 왜 한우 하면 떠오르는게 희성한우일까. 올해 축제는 이런 의문을 풀어준다. 희성한우 주제관을 확대 개편해 희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, 한우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. 또 희성한우축제 스토리북을 제작, 굿금증을 일목요연하게 풀어준다.

일관된 희성한우의 맛을 위해 암행어사와 같은 ‘한우감시단’이 축제장 곳곳을 다니며 방문객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희성한우를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
총 길이 145m의 전세계에서 가장 큰 셀프식당은 희성한우의 맛을 더하는 메인 공간이다. 희성한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. 희성한우 주제관 내 발골이벤트 참여를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. 먹음직스러운 희성한우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소한마리 메뉴가 개발돼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.

◇재밌소

희성한우만 먹고 끝이 아니다. 엄청난 즐거거리가 축제의 묘미를 더한다. 테마목장을 주변으로 350m에 이르는 체험구역에서는 한우 관련 체험과 전통놀이, 현대놀이를 적절히 배가해 즐거움을 준다. 옛 농촌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건초 놀이터와 한우인형 쓰고 축제장 누비기, 축제장의 밤을 밝혀줄 LED 야간조명, 수려한 섬강에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노천카페와 축육장, 누가 힘이 센지 가능해보는 머슴돌 들기 대회 등이 축제를 풍성하게 만드는 포인트다. 매일 저녁 메인무대를 장식하는 풍성한 공연은 연인과 소통, 가족, 화합, 군민 등을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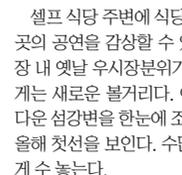
◇즐기소

희성한우축제 역대 최초로 시도되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이번 축제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다. 매년 축제 개최 시 축제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원도심과 전통시장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다. 원도심에 위치한 희성농협 예식장과 식당, 옛 희성새마을금고를 공연장으로 활용한다. 우리나라 웹툰의 서막을 알린 작가 강풀의 웹툰작품 전시회가 열리고, 작가와의 토크쇼를 통해 직접 만날 수 있다. 유료인 이번 토크쇼 입장권은 육선에서 진행된 사전예매에서 조기 마감되는 성과로 이어졌다. 이밖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매직&인형극, 버블쇼, 세대를

망라한 청춘 코미디 연극 ‘라스트 메이트’, 어르신을 위한 추억의 노래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, 원도심 상인들과 소통하며 축제의 지평을 넓힌다.

◇달라졌소

축제장에서만 쓸 수 있는 동전 형태의 전용 화폐가 통용된다. 귀여운 희성한우 캐릭터가 새겨진 동전, ‘우페’(사진)는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며, 축제 기념품으로도 제격이다. 우페만 있으면 축제를 배로 즐길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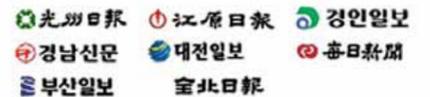


셀프 식당 주변에 식당주변에 한우 맛을 즐기면서 축제장 곳곳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대형 LED TV가 설치된다. 축제장 내 옛날 우시장 분위기를 살리는 전골목장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다. 어린이 놀이터가 보다 다양해졌고, 아름다운 섬강변을 한눈에 조망하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짚라인도 올해 첫선을 보인다. 수많은 LED 전등이 축제장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.

원팔연 희성한우축제추진위원장은 “올해 출범한 희성문화재단과 힘을 합쳐 어느 해 보다도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”고 말했다.

한규호 희성군수는 “해를 거듭할수록 희성한우와 축제의 명성이 높아지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조명을 받는 등 명실상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먹거리축제로 위상을 드높일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/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팀=강원일보 허남윤기자



新韓國語報은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·보도합니다

내 집같은 편안함!

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



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

30년 전통의 한정식,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



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

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·소규모의 연회장

